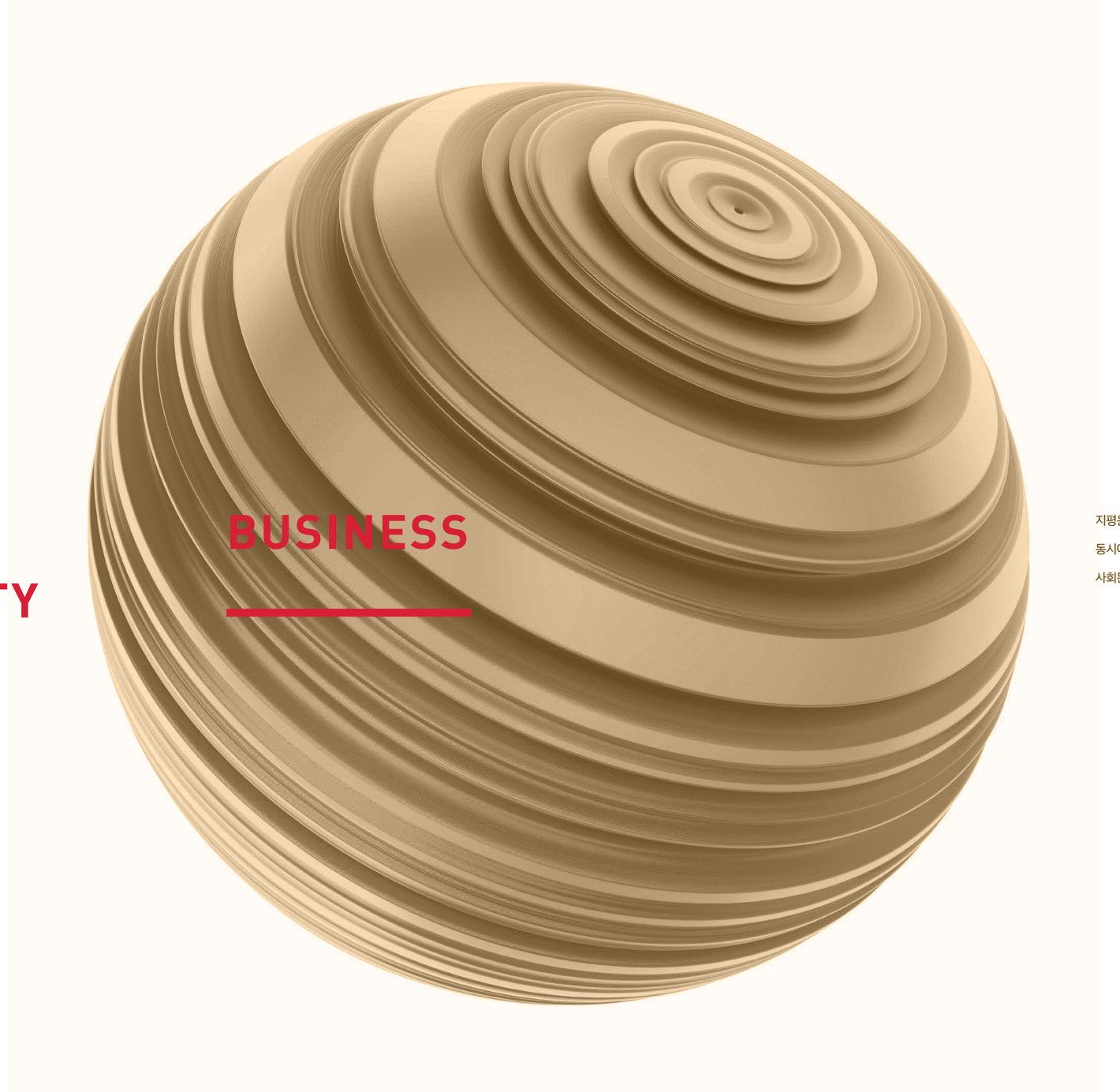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BUSINESS



지평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가치 추구를 중요 과제로 삼아,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전문성을 쌓고 특화된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01

사업성과

업무 내용

지평은 소송 · 중재, M&A, 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 증권, PE, 건설 · 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도산 · 구조조정, 지적재산권, 형사, 조세, 헌법, 행정, 보험, 해상, 국제중재, 상속 · 가사 전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 M&A
- 기업법무일반
- 기업지배구조
- 도산 · 회생 · 기업구조조정
- 해외투자
- 외국인투자
- 공공정책 · 입법지원
- 준법 ·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 인권경영, CSR/지속가능성/사회적가치
- 위기관리

금융

-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 SOC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구조화금융/파생금융
- 인수금융
- 선박 · 항공기금융
- IPO · 자본시장
- 사모펀드 · PE
- 금융규제 · 금융회사 자문
- 금융회사M&A · 해외진출
- 금융 · 증권 · 보험분쟁

분쟁해결

- 금융 · 증권 · 보험분쟁
- 건설 · 부동산 분쟁
- 공정거래 분쟁
-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 IP 분쟁
- 도산 분쟁
- 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 제조물책임 · 소비자분쟁
- 상사 · 민사분쟁
- 국제중재
- 해외소송
- 헌법 · 행정쟁송
- 의료소송
- 가사소송
- 조세쟁송
- 언론소송

건설 · 부동산

- 건설 · 부동산 분쟁
- 건설행정 · 부동산공법
- 공공입찰 · 공공계약
- 국제건설

해상 · 항공

- 해상 · 항공

공정거래

- 부당공동행위(담합)
-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 하도급
- 기업집단 및 내부거래 규제
- 기업결합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 표시광고 · 약관
- 공정거래 분쟁

인사 · 노무

-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형사

- 기업형사
- 일반형사
- 금융형사
- 증권형사
- 건설 · 부동산 형사
- 노동형사
- 조세형사
- 공정거래형사
- 선거형사
- 종교형사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상속 · 가사 · 가업승계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등 분쟁
- 이혼 및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
- 상속세 및 증여세, 가업승계
- 기타 가사사건

조세

- 조세쟁송
- 조세자문
- 세무 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 회계규제
- 관세 및 국제통상

보험

- 보험 분쟁
- 보험 법령
- 특종 보험
- 해상 · 항공보험 · 재보험
- 보험회사 검사
- 보험회사 지점 설립/운영
- 보험회사 인수 합작
- 보험회사 상장

산업별

- 바이오 · 제약 · 의료기기 · 헬스케어
-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에너지 · 자원 · 인프라
- 환경
- 건설 · 부동산
- 전자금융 · 핀테크
- 신기술 · 신산업
-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 레저
- 공공계약 · 절충교역
- R&D
- 교육 · 학교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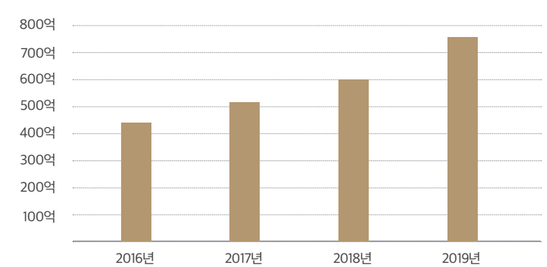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중국
- 러시아 · 중앙아시아
- 캄보디아 · 라오스 · 태국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일본
- 인도 · 중동 · 아프리카
- 영국 · 독일 · 유럽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중남미
- 북한 – 북한투자지원센터

2019년도 사업성과

항목	금액(단위 : 천원)	비고
매출액	₩74,318,580	서울사무소 기준 (지방 · 해외사무소 제외)
기타수익	₩755,502	

연도별 매출액 추이

지평은 서울사무소 기준으로 2016년에는 459억 원, 2017년에는 517억 원, 2018년 599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고, 2019년에는 7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제적 가치의 분배[1]

이해관계자	항목	금액(단위 : 천원)
구성원	급여	₩55,300,480
	퇴직급여[2]	₩1,626,406
협력사	운영비 (임차료 및 비품 구입 등 영업외비용 포함)	₩14,855,936
정부	법인세 등 세금, 공과	₩1,535,867
	(급여와 퇴직급여 중 소득세, 주민세)	₩10,092,000[3]
지역사회	기부금[4]	₩623,690
기타	이자비용	₩2,563

1) 서울사무소 기준
2) 근로자의 100%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해당 금액은 구성원 급여, 퇴직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1대1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기부하는 곳에 지평이 동일 금액을 기부하는 정책) 기부금 중 구성원이 기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2

업무 수행을 통한 사회적가치의 창출

지평의 사회적가치 창출

지평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등 분쟁절차에서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활동을 통해 고객의 권익 보호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법치주의의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평은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에 대해 사회적가치 경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적가치 추구를 중요 과제로 삼아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업무에 특화된 팀 조직들을 새로이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인권경영팀

지평 인권경영팀은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된 진정, 민원, 소송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환경팀

지평 환경팀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문, 탄소배출권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아이디어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기업과 환경단체에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법규 준수 관련 법률자문 업무, 환경권 관련 각종 소송과 분쟁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지원

소셜벤처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과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지평과 두루는 다양한 소셜벤처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들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루트임팩트, 크래비스파트너스, SOPOONG 등 소셜벤처 지원그룹과 MOU를 맺어 소셜벤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변호사 1명과 소셜벤처 1곳을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소셜벤처 20곳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평의 법제연구

지평은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의 법률자문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법률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고, 더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19년도에 총 14건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평이 수행해온 법제연구 및 자문	
미얀마 진출기업 애로사항 보고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방안 연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검토
남북 CEPA 합의서 작성과 법적 쟁점 분석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법제교육(교육관계 법령 및 사례) 교재 개발 연구	남북경협 투자분쟁 해결절차 개선방안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개성공단 법률자문단
지역R&D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사회문화교류자문
장애 법제 정비사업 연구	포항지진피해자 구제 법안 검토

지평 · 두루 2019년도 하계 ·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지평은 2019년도 하계에 2차례에 걸쳐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주 동안 약 4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변호사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2019년도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았고 앞으로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공익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2019년도 하계 실무수습	1차 6월 24일 ~ 7월 5일	2학년	24명	서울대 6명, 성균관대 4명,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각 3명, 서강대/한국외대/경희대/부산대/아주대 각 1명
	2차 7월 8일 ~ 7월 19일		21명	서울대 7명, 고려대/연세대 각 5명, 이화여대 3명, 한양대 1명

두루는 2019년 여름과 겨울 각 2주 동안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루의 실무수습은 공익소송 기록 검토, 서면 작성, 리서치, 재판 방청, 공익단체 등 NGO와의 협력 및 교류, 그 외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익변호사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2019년도 동계 실무수습	1월 7일 ~ 1월 18일	1학년, 2학년	17명	고려대/성균관대 각 3명, 인하대 2명, 부산대/서강대/서울시립대/아주대/연세대/원광대/전남대/중앙대/한양대 각 1명
2019년도 하계 실무수습	8월 5일 ~ 8월 16일	1학년, 2학년	11명	이화여대 3명, 서울대 2명, 경북대/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인하대 각 1명

외부 강연, 세미나 및 법학교육 지원

지평은 법률, 회계, 협상 등 업무 전문성과 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 증권, PE, 건설 · 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도산 · 구조조정, 지적재산권, 형사, 조세, 헌법, 행정, 보험, 해상, 국제중재, 상속 · 가사 등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평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문성과 실력, 경험, 지식을 고객 및 시민들에게 세미나, 강연, 기고 등의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평이 주최한 세미나	
2019년 3월 11일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세미나
2019년 3월 27일	북한투자 특별세미나
2019년 5월 16일	수출입결제방식 트렌드 및 국제무역규칙 세미나
2019년 9월 19일	오만과 한국 간의 무역과 투자 세미나
2019년 10월 22일	글로벌 생명과학 분야의 Collaboration 세미나
2019년 10월 30일	미국 대관업무 및 조달계약 실무와 전략 세미나
2019년 11월 22일	동남아시아 국가 투자 설명회

법학 교육 지원

지평의 변호사들은 후배 법조인의 양성을 변호사의 중요한 책무로 생각합니다. 이에 예비 법조인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평의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대학교에 직접 출강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명의 지평 변호사가 5개의 법학전문대학원과 1개 대학교에 출강하였습니다.

법학 교육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출강현황		
임성택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학기 출강
강성국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1, 2학기 출강
최승수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2학기 출강
박용대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학기 출강
김지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학기 출강
권창영 변호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1, 2학기 출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학기 출강
배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2학기 출강
정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학기 출강

지평만의 고유한 색깔, 분위기, 지향, 매력, 이 모든 것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명재언 학생

로스쿨에 들어온 이후 가장 즐거웠던 시간을 꼽으라면, 단연코 지평에서 실무수습을 한 2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로펌이라는 곳을 막연하고 차갑게만 느끼던 저에게, 지평은 조직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동료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 제가 만난 변호사님들은 한 분 한 분 훌륭한 법률전문가였지만, 동시에 변호사 개인이 아닌 지평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유능하고 신뢰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로펌의 전문적인 업무와 공익에 대한 지향 사이에서 '경계인'의 삶을 사는 것 같다는 한 변호사님의 말씀은, 제가 지평에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이유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지평에서는 구성원의 공익활동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익활동에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을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장려했습니다. 유능한 법률전문가인 동시에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삶, 어쩌면 정확히도 경계인의 삶을 살고 싶은 저에게, 지평은 이미 수많은 선배들이 닦아 놓은 길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선배님들이 많은 곳

이정주 학생

지평은 상하간 소통이 매우 원활하고 구성원간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6년간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 변호사들은 업무에 대한 철저함을 강조하면서도 후배 변호사와 직원들의 행복을 조화시켜 나가려 했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서 선례를 만들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선한 압박'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후배 변호사들은 그러한 선배 변호사들을 닮고 싶어했습니다

'삼인행필유아사'라는 논어의 문구처럼 누구에게서도 배울 점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전제될 때 온전한 배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진심을 담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지평은 'Only One' 로펌이라 확신합니다.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선배님들과 보낸 2주는 앞으로 제 변호사로서의 삶에 지평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문을 두드려 보세요

감나영 학생

두루에서 얻은,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글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만큼 제게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었고 소중한 인연들이 남은 기회였습니다. 아무래도 공익변호사에 대한 꿈을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저와 같이 방황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혼란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연 내가 공익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을까 회의감과 두려움이 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저처럼 대단히 평범하고 잘 모르는 아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 속 끌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도전을 할 수 있었고 두루는 그런 용기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큰 가르침을 쥐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분들이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제게 너무도 감사한 김용진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처음 여러분 자신을 이 길로 이끈 그 마음이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존재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현장에서 뵙기를

김진영 학생

두루에서 보낸 2주는 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과제를 준비하며 공익변호사에 대한 제 마음이 작지 않다는 것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익에 대한 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하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변호사님들과 공익변호사의 역할, 가능성과 한계, 현장의 분위기 등에 대해 나눈 이야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법조인, 활동가, 기자, 외부 기관과 협업할 수 밖에 없고, 여기서 오는 시너지가 굉장하다는 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동료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제게 변론을 부탁한 분들을 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대리인이라는 말에, 변론이라는 말에 이토록 가슴 뛰었던 날은 없었습니다. 2주간 모든 부분에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자 노력한 변호사님들과 함께한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루에 지원할까 고민중이시라면 절대 후회 없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열 번, 백 번 추천합니다. 존재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추후에 현장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03

조달 활동에서의 사회적가치의 추구

지평은 조달 활동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모든 판매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한 제안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평은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산업안전을 준수하는 환경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제품을 세심하게 선택해서 조달합니다.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업체 제품의 구매를 자제합니다. 더불어 지평은 자원 보존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환경 부담이 적은 제품의 조달을 촉진합니다. 이외에도 구매처 선정 시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정무역제품업체를 선정하고자 리서치, 미팅, 견적 비교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법률조력을 하고 있는 소셜벤처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 또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구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입니다.

지평 주요 구매 사례	
점자명함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 제작
도시락	국내 청정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도시락 구매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의 매출 촉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과 상생에 동참
화장실, 탕비실 비치 세정제 등	유기농 공정무역 제품
원두커피	직원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커피원두와 공정무역으로 수입된 커피 원두
복사용지	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의 복사용지
문서파쇄	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 문서파쇄업체
노인택배	지역상생과 노인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한 서대문지역 노인 지하철택배 이용

인권경영의 실천과 확산

곽은비 변호사

인권경영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권경영은 국가뿐 아니라 기업도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국제사회는 기업에 인권 존중 책임이 있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로 기업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고, 해외에서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큰 규모의 사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인권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권경영 관련 연구와 용역을 수행하셨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알려주세요.

특정한 기업의 운영 전반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 침해 리스크를 파악 및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방지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조언하는 업무를 했습니다(전 과정을 통틀어 인권영향평가 또는 인권실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인권경영이 무엇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현존하는 또는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후 진단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 외에 기업의 규정을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도 했습니다.

위의 연구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셨는지요?

우선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을 기업 내의 피해자로 상정하기는 쉽지만, 기업의 일부로서 기업 밖에 있는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성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권경영을 접함으로써 실무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에 따라 인권 침해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을 기업이 실제로 시정한다면 더욱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평이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기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인권경영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공공기관은 인력이나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영진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자율성이 더 높은 사기업들의 인권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더 큰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에, 기업의 편의보다는 인권의 관점에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지평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